

유적지 순례 87

磨厓先生諱輓

마애선생 휘 예



△22세 마애선생 휘 예의 낙강정과 기적비(안동시 남후면 단호리72번지)



△낙강정



△낙강정 기적비



△판서연과 낙강정 현판



△ 마애선생 신도비각(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마애선생은 연산군 1년 순흥의 병산리에서 출생하였다. 선생은 부정공파(副正公派) 21世로 문하시랑(門下侍郞) 휘 경보(景輔)의 11세 손이며 6대조는 보승낭장(保勝郎將)을 지내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추증된 덕생(德生)이며 증조는 황성현감을 지낸 거약(居約) 증 호조참의이고 조부는 안동우향계(安東友鄉契)의 맹주로서 졸 후 호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선고는 철경(哲經)이며 성종 14년 식년시 유학으로 진사 3 등에 합격하였다. 증종실록에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이 천거하면서 "관철경은 안동인으로 의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제(吏才)가 백집사(百執事)를 맞길만합니다" 라고 하였다. 금계지(金溪誌) 인물조에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에 시거하여 웅장한 집을 지으니 마애고택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개성유수를 지낸 이평과 더불어 안동 향중의 장석(丈席)이 되었다. 증종 19년에 졸하니 자헌대부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풍산읍 계평리 청성산 서쪽 불당곡에 있다.

마애선생은 증종 10년 사마시인 향시에 합격하고 증종 11년 회시(會試)에서 생원이 되고 또 동년 식년시 문과병과 급제하였다. 5월에 승문원 부정자에 보임되고 증종 13년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으로서 조광조(趙光祖), 김정국(金正國), 채세영(蔡世英) 등과 경연(經筵)에서 주자의 근사록을 진강하였다. 증종 14년 북문 사화가 일어난 다음날 선생은 입시(入侍)하여 기사관(記事官)으로서 '국가의 중대사를 대신이 도당(都堂)에 모여 공명정대히 처리 함이 옳거든 아음에 행하고 북문 거사는 옳지 않다'고 진언하여 조광조 등 제공을 구함에 힘썼다.

증종 24년 35세에 통훈대부에 오르고 증종 25년 절충장군대호군이 되고 통정대부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증종 26년 흥문관제학지제고 겸 경연참찬관수찬관이 되어 왕자의 치극의 도를 논술한 장문의 상소를 올려 궁금(宮禁)의 법도를 경계하고 간신의 발호를 배척케 하니 임금의 기뻐하였다.

또 재상 이항(李沆)의 비행과 변장(邊將)의 횡포를 막아 제세안민(濟世安民)의 성정을 베풀도록 간간하니 주상은 지당하다는 비답을 내리고 흥문관 부제학으로 전보하였다. 또 성상(聖上)은 민생의 복리를 위하여 극궁수성(極躬修省)의 상소를 올리니 주상은 시의적절하다고 하였다. 또 군비와 병졸이 부족한 이유는 외방양민이 남의 노비를 취처(娶妻)하여 천인이 되므로 병역을 면하는 고로 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니 영상 정광필이 동조하였다.

증종 28년 공조참판에 오르고 곧 병조참판에 이배되었다. 이어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에 오르고 근래 오락케 등과 무역함에 자국의 사신이 밀무역한 관계로 체통을 잃고 불법이 많다고 하니 상(上)은 대신은 당물(唐物)사용을 금하고 관복만 당물(唐物)사용하라 하니 선생은 사치와 검소한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고 하였다.

증종 30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겸 5위도총부 부총관 지경연 의금부사를 배하였다. 증종 31년 공은 노모봉양을 위해 사직을 청하였으나 삼상이 의논한 바 아직 이르다고 불허되었다.

2월에 충남의 제방축조에 수군을 동원하여 완공, 농민생활 안정과 증산에 기여하고 4월 경상도 관찰사(觀察使) 겸 수군병마절도사로 부임할 때 주상이 인견하고 '학고풍화에 진력하고 각군을 점검하라' 하니 선생은 20 여년 봉직하여 2품직에 오른은 상은(上憲)이 지중함이나 장학(獎學), 근농(勤農)은 물론 관리의 빈염(貧廉)을 조사하여 민폐 척결에 진력하여 상은에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10월에 자헌대부 형조판서(刑曹判書) 겸 우의도총부 도총관(都總管) 지경연 의금부사세자부 빈객에 승차되었다. 증종 32년 선생은 근자 개성부에서 내전내령 또는 동궁별감을 사청하여 백성으로부터 취곡을 강행하는 혹세무민(惑世誣民)자를 엄단함이 가하다고 주상하였다.

4월에 우참찬(右參贊) 겸 의외부사가 되고 7월에 이조판서(使曹判書)에 보임되어 중국사신이 군대(軍隊)를 관병(觀兵)함은 굳기 누설뿐 아니라 화약제조법이 누설될 우려가 있으니 경계함이 가하다 주상하였다. 11월에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이배하고 증종 33년 안동으로 귀향하였다.

선생은 수십 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직언하여 여러 간신을 치죄(治罪)케 하고 경국대도(經國大道)를 논계하며 어사로 강원도를 순찰하면서 탐관오리(貪官汚吏)를 징벌하고 국유림 납벌을 회수, 백성의 세금을 경감케 하는 등 허다한 선정을 베풀었다. 안동에 귀향하여 노모상을 당하여 3년 집상하였다.

선생은 증종 36년 안동 남후면 단호동 한지산 낙동강 상류 공순포에 낙강정(洛江亭)을 건조하고 시를 지었다. 퇴계선생이 명종 원년 시 1수를 지어 확대하였다. [작은 배를 타고 한 강 하늘을 가로 질러서 초옥집 속을 찾아 퇴거하는 현인을 배알하는데 상락(上洛)의 바위 앞으로는 천 길의 물이니 이제부터는 부르기를 판서연(判書淵)이라 해야겠네]

낙강정 기적비(紀蹟碑) 내용 중에 위에서 밝힌 공적의 기록이 있다. "이 정자는 1541년 선생께서 세웠다. 선생은 44세까지 사화 당쟁의 격랑 속에서 강직한 정신으로 경연에 입시할 때 정치행적을 쌓았으며 증군에임과 시증정도의 직인으로 조정을 숙연케 하므로 왕도 정치의 기강을 엄히 주창하였다.

퇴계선생이 이곳을 찾아 시 한수를 남기니 능지영웅(能知英雄)이요 능지문장(能知文章)이란 말과 같이 마애선생의 정치적 실천덕행(實踐德行)을 존경한 증좌이다. 퇴계선생의 만사(輓詞)에 "天堯至實難溶化천소지보란용화百鍊精剛未壯鋒백련경강미좌봉 불에 천번 녹여도 녹지 않는 보배요 백련을 단련한 칼날이라 좌절하지 않았다'와 같이 선생을 잘 이해하고 도덕과 치적을 일러주기에 합축한 말이다.

죽후손 기갑(奇甲)이 낙강정 기적비문(洛江亭 紀蹟碑文)에 찬한 글에 "본 정자는 1541년 선생께서 세웠다. 선생은 사화와 당쟁의 격랑 속에서도 강직한 순리정신으로 청현한 환로(宦路)생활에 열리결백(廉吏潔白)과 무편무당(無偏無黨)의 신념으로 임하며 기묘사화(己卯士禍) 다음날 입시하여 왕에게 직고(直告)로 탄핵하여 정도의 언행일치한 불굴의 직언에 조정이 숙연하게 한 사실은 사료(史料)와 기묘명현록에 선생의 처신이 잘 나타나 있으니 왕도정치(王道政治)의 기강을 엄히 주창(主唱)하였다.

47세부터 관직을 버리고 향리인 이곳에 정자를 짓고 은거하며 산수지락(山水之樂)으로 유유자적(優遊自適)하니 선생은 참으로 공자의 이른바 고지유직(古之遺直)이며 불가지재(不器之材)이다. 선생의 이도지의(使道之義)알리고져 가(歌)를 불이니 '옥은 천년 묵혀어도 윤기가 변함없고 금은 몇 백번 태워도 광채가 더해지고 연은 진흙을 싫어 않고 더욱 향기롭다. 선생의 유풍 산 같고 물같이 영원하니 많은 군자는 나의 이 글을 읽어 보십시오 행적을 사실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2011년 12월" 라고 하였다.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72번지에 있는 낙강정(洛江亭)은 마애선생 유적보존회(회장 권용주)의 진력(盡力)으로 하천 정용허가를 받고 2011년 6월 2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 587호로 지정받아 영구히 보존케 하였으며, 또 유적보존회는 2013년 4월 14일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묘소 아래에 신도비를 건립하고 수갈 고유를 하면서 관정달 대중원 총재가 초헌 헌작하였다.

죽 후손 기갑(奇甲)이 쓴 신도비문에 "퇴계선생이 낙강정을 찾아 '천년 담근 지극한 보배는 녹여도 녹지 않고 백번 단련한 강한 칼날은 좌절하지 않는다.' 한시대의 대현(大賢)이 되시어 생전 사후에 퇴계선생의 추종을 받았으니 공의 업적은 많았겠지만 변화를 겪으면서 선양할 수 없으니 묘사(模寫)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며 안동 김창희가 쓴 비각 상량문에 "추상같은 논리를 세워 정치의 팔도목을 장문으로 간직하였도다. 권세와 재력으로도 능히 누르지 못하고 무력으로도 능히 굽지 못하였네.

불당산의 수려한 산색이 옛날과 다름없고 묘소의 경계 높고도 우뚝하다." 하였고 완산 유건기가 쓴 수갈 고유문에 "간사한 신하를 추상같이 물리치고 권위있는 세족을 연좌하여 탄핵하셨도다 팔조의 상소 굳세고 강직하여 임금께서 특별한 비답을 내리셨도다."라 하였다.

선생은 명종 4년 정침에서 고종하니 안동 청성산 서쪽 불당곡 선영에 안장했다. 판서 허평(許平)은 공을 찬하여 만세명절(萬歲名節)이라 하였는데 왕조실록에 있고 신도비문은 좌부승지 김약련(金若鍊)이 지었으며 행장은 운산 이취재(李巢載)가 지었다. 선생의 실기가 있고 저서로 기묘사관일기(己卯使官日記)가 있다.

선생의 후사는 2남1녀이고 계자 안세(安世)는 생부가 당숙 주(倅)이며 장남의 공훈으로 가선대부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추증되었다. 재취 전주이씨는 효령대군의 고손녀이다. 묘소는 불당곡 고조부 묘소 중록에 있다.

차자는 근석(根碩)이다. 손자 중 적랑공(赤梁公) 전(諡)은 명종 4년 출생하여 선조 15년 식년시 무과급제하고 축산만호, 고성현령이 되고 선조 30년 정유제란에 적랑만호로서 충무공 이순신의 아장(阿將)으로 싸웠으며 선조 31년 노랑해전(露梁海戰)에서 순국하니 당년 50세였다. 선조 38년 선무원종공신 1등으로 녹훈되고 통훈대부 승정원좌승지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불당곡 선영에 있다.

손자 극(吉)은 명종 16년 출생하여 선조 27년 별시 부과에 급제하여 훈원원 주부가 되고 임란에 참의하여 광재우 휘하에서 분전하였다.

묘소는 불당곡 선영에 있다. 손자 지(誌)는 명종 20년 출생하여 문해로 이거하여 남경대(鏡景臺)를 지어 자적하였으며 선조 35년 영양의 입암(立岩)의 벗들과 함께 봉림서원(鳳巖書院)을 창건하였다. 묘소는 입암 삼산리 남산에 있다. 근석의 아들 해수(海壽)는 참봉을 지냈으며 묘소는 예천 용궁의 선고묘 계하에 있다.

(김주 : 17세손 권용주 회장 054-821-3823 편집 : 현봉 권경석)



△마애선생 예의 묘소(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마애선생 신도비



△마애선생 신도비 수갈 고유(초헌관 권정달 대중원총재) 불당곡 선영



△마애선생 신도비 수갈고유제에 참제원이 부복하고 있다.



△판서연기(남후면 낙강정)